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같이하기를...

-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원만 봉행 -



2020년 5월 30일(불기 2564년 음력 윤 4월 8일)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원사 대웅전 앞 특설 도랑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거행되었다. 법요식 행사에는 주지 운봉 스님, 부주지 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여하였다.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매시 정각에 축원이 있었다. 불공에 참가한 신도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공양물을 대웅전 괘불 앞에 마련된 연단에 올려놓고 스님들의 축원에 맞춰 절을 울리며 불공을 드렸다. 또한 한 달 전부터(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법요식의 연기로 두 달 전부터) 특설도랑에 준비된 연등 아래서 자신의 등을 찾으며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마음으로 소망을 빌었다. 불공을 마친 신도들은 아홉 마리의 용이 감싸고 림비니 동산의 화원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는 관불의식(관육식)에 참여하여,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함은 물론, 속세의 때를 씻고 깨끗하고 맑은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2천5백여 년 전,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기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며 사자후를 외치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도 아담안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과 땅 위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일체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니
내 마땅히 저들을 평안케 하리리”

이 외침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또한 '누구나 부처님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선포하신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출가의 모습, 깨달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 즉,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윤회 법칙 속에서 한 번뿐인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는 길은, 자기 속에 본래 갖춰진 법신(自性)을 발견하는 길임을 제시하신 것이다. 이를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 하며,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절대 목표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절대 행복이 무엇가를 알려 주셨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절대 무한의 생명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괴로움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항상 하지 않는 삶에서 항상 하는 삶으로, 거짓된 어리석은 '나'에서 밝고 지혜로운 참된 '나'의 발견으로 인류를 안내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 외에도 참된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따라 실천 수행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늦게 치뤄진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원만히 봉행되었다. 그러나 예년에 진행되었던 식전 행사와 영산재 시연, 점등식 등은 생략 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이 예전의 일상 생활로 복귀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독성도, 약사불회도, 산신도



각각 보관(寶冠)에 흰 달과 붉은 해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아래쪽 좌우 양 끝에 배치된 사천왕은 각기 지물(持物)**로 긴 보검을 든 동방천왕, 그리고 오른손에 용, 왼손에 여의주를 든 남방천왕이 사방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십이신장들은 경전마다 약간 다르나, 일반적으로 현장의 번역인 '약사유리광여래봉원공덕경'을 따른다. 화면 위쪽의 본존불 좌우로 6위씩 묘사된 십이신장(十二神將)은

- ①궁비라[宮毘羅, 해(亥: 돼지)]
- ②반절라[伐折羅, 술(戌: 개)]
- ③미기라[迷企羅, 유(酉: 닭)]
- ④안저라[安底羅, 신(申: 원숭이)]
- ⑤알미라[頰 羅, 미(未: 양)]
- ⑥산저라[珊底羅, 오(午: 말)]
- ⑦인달라[因達羅, 사(巳: 뱀)]
- ⑧파이라[波夷羅, 진(辰: 용)]
- ⑨마호라[摩虎羅, 묘(卯: 토끼)]
- ⑩진달라[眞達羅, 인(寅: 호랑이)]
- ⑪초두라[招杜羅, 축(丑: 소)]
- ⑫비갈라[毗羯羅, 자(子: 쥐)]

등이다.

이 불화의 주조색(어떤 곳에 많이 쓰여 주된 흐름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색)은 대의(大依)를 중심으로 녹색과 군청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본존불의 신광(身光)에 금박을 사용하여 광배 전체를 표현했고, 권속(眷屬)의 보관, 장신구 등에 호분을 두텁게 발라 입체감을 준 뒤 금니로 덧바른 고분법(高粉法)이 사용되었다. 또한 신체의 적절한 비례감과 안정된 구도, 명확한 필선 및 선명한 색감에 전통적인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1894년에 그려진 이 약사불회도는 19세기 후반 서울·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수화승(首畫僧)인 금곡 영환 등 17명의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이 중 5명이 1901년에 고종의 후궁 엄비가 시주, 발원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5호)에 참여했다. 따라서 봉원사 약사불회도는 왕실발원불화에 참가하였던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들이 주관하여 조성한 것으로, 가름한 얼굴에 섬세하게 묘사된 눈, 코, 입 등 각 세부 묘사가 정교하다. 또한 신체의 적절한 비례감과 안정된 구도, 명확한 필선 및 선명한 색감에서 전통적인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삼세불화(석가불을 주존불로 왼쪽에 약사불, 오른쪽에 아미타불을 둔 삼불이 한 조를 이루는 불화)로 봉안된 약사불회도는 많지만 봉원사의 약사불회도처럼 약사불만 별도로 봉안된 경우는 드물다.

이상과 같이 봉원사의 약사불회도는 왕실발원불화에 참여했던 당대의 저명한 화승들이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흔치 않게 남아 있는 19세기 약사불회도의 화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니(金泥) : 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며, 특히 어두운 바탕의 종이에서 독특한 효과를 낸다. 금물(金물), 이금(泥金)

**지물(持物) : 부처나 보살, 천왕 등이 그들의 권능이나 자비를 상징하면서 손에 지니고 있는 물건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시의 사전 조사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 2020년 5월 7일 서울시보(제3585호)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 공고되었다. 지정 예정된 문화재는 독성도(獨聖圖),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 산신도(山神圖)로, 이번 호에서는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를 소개하고자 한다.

봉원사 만월전에 봉안된 봉원사 약사불회도의 본존불은 약사여래로 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부처란 뜻으로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부른다. 전체

크기는 가로 217.9cm, 세로 149.1cm이며, 화면 크기는 가로 209.8cm, 세로 142.2cm이며 1894년(고종 31)에 조성되었다.

화면의 구도는 중앙의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일광·월광보살, 사천왕상 2위, 약사 12신장으로 구성된 군도(群圖) 형식이다. 화면 중앙의 약사여래는 연화줄기를 대좌로,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고, 두 손을 배 부근에 포개어 맞잡은 선정인을 하고 있고 손 위에 금니(金泥)*가 찬란한 약호(藥壺 : 약을 담은 병)를 들고 곁가부좌하였다. 약사여래의 좌우로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좌·우에서 본존불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문 의 : 종무소 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현충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영가들을 위한 추모 법회 원만 봉행



2020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충절을 추모하는 시식이 봉행되었다. 원래 이날 봉행 예정이었던 영산재는 코로나19로 무기 연기되었으나, 영산재의 봉행 취지에 맞춰 봉원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여하여 영가들을 위한 시식이 봉행되었다. 오전 9시 50분, 타종과 함께 봉원사 대웅전에서 시작된 행사는 10시에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에 이어 상단관공, 중단관공 그리고 시식의 순으로 치러졌다. 시식에 앞서 영산재 보존회 보유자 구해 스님은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과 비극을 안긴 6.25 전쟁이 발발(勃發)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가들을 위해 큰 재를 모셔야 하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려워 규모를 축소, 조촐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며, 행사를 이끌고 있는 소임 스님들과 함께 참석한 신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이어 구해 스님의 집전으로 시식이 거행되었으며, 소임자와 신도의 순으로 향을 올리고 불공을 드렸다.

영산재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불교 최고의 공연문화이다. 매년 양력 6월 6일 현충일에 봉행함으로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영산재를 통한 공덕을 나라와 겨레에 회향해오고 있다. 또한 나라 안의 크고 작은 우환이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원만한 성취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법하고 장엄하게 봉행해 왔다.

봉원사는 이 땅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하며 한민족과 인고의 세월을 같이한 대한민국 대표 사찰이다. 또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의 흥망성쇠와 길흉화복을 두루 어루만지며 이 땅의 민초들과 함께 숨 쉬어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봉원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중생구제(衆生救濟)는 물론이고 민족문화 창달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태고종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봉원사는 지난 수백 년간 영산재의 명맥을 지켜왔다. 그 결과 영산재는 불교가 성행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훌륭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고 우리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인이 공유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십 년 전부터 봉원사는 고 박송암 스님을 중심으로 우수한 후학들을 길러 냈으며, 구해 스님(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을 비롯하여 일운·기봉 스님

(영산재 전수조교) 등

제자들의 노력으로 전승되어 왔다. 또한 후학 스님들은 영산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영산재는 의식 자체만 전승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만춘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영산재의 학문적 위상과 가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학술제를 주최하고, 연구와 채보 그리고 철저한 고증 등으로 영산재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연구결과를 끊임없이 발표해 왔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선조사 스님들과 후학들에 의해 영산재를 올바르게 전승, 보존하고 있는 봉원사는 부처님의 가피가 총명한 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봉원사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양력 6월 6일 현충일을 기하여 영산재 시연을 펼쳐오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영산재 시연이 잠정 연기된 상태이나, 현충일의 본래 의미인 국가경축일(국경일)이 아닌 국가추념일로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시식을 봉행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달의 시

멸치의 열반

장용철

눈이 꼭 클 필요 있겠는가
검은 점 한 개 꼭 짙어 놓은 멸치의 눈

눈 어둔 그대들을 위하여
안구마저 기증하는 짹짹한 생

눈은 비록 작아도
살아서는 바다를 다 보았고
이제 플랑크톤 넘실대는 국그릇에 이르러

검은 빛 다 빠진 하얀 눈
멸치의 눈은 지금 죽음까지 보고 있다

장용철/시인, 대학교수

1958년 춘천 출생.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1985년), 시집 『강화 아리랑(한국의 서정시 132)』, 『늪은 산』, 『서울지옥』, 에세이 『작대기』, 저서 『오늘의 북한 불교』, 『잊혀진 가람 탐험』 등

제23장 상유품(象喻品)

화살을 맞고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구도자는 온갖 고난과 고독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가르침

▶ 본 마음 깨끗하고 바르게 하면

本意爲純行 及常行所安 悉捨降結使 如鉤制象調
본의위순행 급상소안 실사강결사 여구제상조

본 마음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행하고
또 편안해 할 것을 항상 행하여
모두 버려 번뇌를 없애면
갈고리로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과 같네

▶ 도를 즐겨 방일하지 않고

樂道不放逸 常能自護心 是爲拔身苦 如象出干陌
낙도불방일 상능자호심 시위발신고 여상출간陌

도를 즐겨 방일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면
그로써 몸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코끼리가 스스로 늪을 벗어나는 것과 같네

▶ 어진 이를 만나 함께 가며

若得賢能伴 俱行行善悞 能伏諸所聞 至到不失意
약득현능반 구행행선한 능복제소문 지도불실의

만일 어진 사람 만나 함께 길을 가며
균세계 선을 행하면
온갖 잘못 들은 것 다 물리쳐
가는 곳마다 실망하는 일 없으리

매월 관음재일(음력 24일)에 열리는 인등 기도 법회



2020년 6월 15일(음력 윤 4월 24일) 오전 10시, 봉원사 미륵전에서는 소임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등(引燈) 기도 법회가 열렸다. 타종을 시작으로 시작된 법회는 불자들이 매년 한 해 동안의 어둠과 무명을 몰아내고 청정한 마음과 지혜의 광명을 밝혀 무량복덕(無量福德)을 누리기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봉원사의 인등 공양은 신도들을 위한 정례기도이며, 그만큼 매우 비중이 높게 봉행된다.

부처님 전에 인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이 맑아져서 지혜를 얻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어 장애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24시간 부처님 전에 불등을 밝히는 공양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가족의 소원과 희망을 담아 인등을 밝혀 큰 인연가피를 받음은 어떠할까?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착공

경자년 6월 15일(음력 윤 4월 24일) 월요일 봉원사 삼천불전에서는 봉원사 부주지 현성 스님과 대중 스님들, 그리고 관음회 회원과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착공식 불공이 거행되었다. 지난 1월 22일(음력 12월 28일) 기공식 이래로 6개월여 만에 열린 기공식에서 현성 스님은 “그토록 염원하였던 보수·정비 불사 착공식을 오늘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사를 이루게 된 고마움으로 불보살님과 동참하신 신도님들, 그리고 봉원사를 지켜주신 역대 조사 스님들, 또한 이 자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조상님들께 함께 공양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라고 하였다.

삼천불전은 1945년 화주 김기월 스님과 화주 김운과 스님의 연력과 전 사부대중이 원력을 합하여 46칸 크기의 대규모 광복기념관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전쟁 중 1950년 9월 25일 한강도하 작전 때 소실되었다. 이후 1986년 주지 조일봉 스님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건물허가 및 준비 과정을 거쳐 1988년 삼천불전의 복원 불사가 시작되었다. 전통사찰 양식으로 지어진 삼천불전은 단일 목조건물로는 당시 국내 최대(210평)의 건물로, 불사가 시작된 지 9년여 만에 완성되었다. 대들보의 무게만 7톤이며, 수령 227년 된 나무들이 사용되었는데 못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삼천불전 내부에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과 삼천불을 봉안하였다. 주불로 모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실내 좌불로는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관음재일과 함께 거행된 불공은 영단에 제사를 모시고, 스님들과 더불어 신도들도 함께 잔을 올리고 불사가 원만 회향하기를 기원하였다.



● 사보 후원금 ●

- 석창호 5만원(환우 스님)
 - 전준섭 3만원(성담 스님)
 - 신영식 3만원(일운 스님)
 - 신동현 1만원(일운 스님)
 - 최영부 5만원(선각 스님)
 - 이병림 2만원(선각 스님)
-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분들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 ✓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3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슈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대기수의 전생 이야기-말을 잘 타는 사람의 전생 이야기

옛날 보살은 바라나시의 왕이 되어 공평하고 정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변방에 난리가 일어났다. 왕은 보군(步軍)과 차군(車軍)을 이끌고 난리를 평정하러 나아갔으나 그만 패배하여 적군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다. 왕은 혼자 말을 타고 도망쳐 시골의 어느 마을로 들어갔다.

그 마을엔 왕의 편인 사람들이 30여 명 살고 있었다. 마침 이들은 아침 일찍 마을 한복판에 모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이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몸을 장식한 채 마을 안으로 들어오자 두려워 대부분이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집으로 도망치지 않고 왕을 맞이했다.

“듣건대 변방에 난리가 나서 왕이 출정 하셨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왕의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입니까?”

“나는 왕의 편입니다.”

왕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왕의 편이라고만 말했다.

“그렇다면 이리로 오십시오.”

그는 왕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여기 걸상에 앉으십시오.”

그는 왕을 걸상에 앉게 한 뒤 아내를 불렀다.

“여보, 여기 와서 이 벗의 발을 씻겨 드십시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받들어 왕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는 누울 침대를 준비해 주었다. 말도 안장을 벗기고 물을 먹이고 등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 말이 먹이를 풀도 주었다. 그는 이렇게 사나흘 동안이나 왕과 왕의 말을 돌보아 주었다.

왕은 기운이 회복되자 떠날 준비를 한 후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나는 대기수(大騎手 : 말타는 사람)라는 사람이네. 내 집은 성 안의 한복판에 있네. 만일 무슨 일이 있어 성내에 오거든 나를 꼭 찾아오게. 남문 입구에서 있는 문지기에게 대기수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오면 되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 후 곧 그곳을 떠났다.

왕의 군대는 왕을 잃어버리고 성 밖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가 왕이 돌아오자 반가이 맞이했다. 왕은 부하들을 데리고 성내로 들어갔다. 왕은 성내 남문을 지나다가 주위를 둘러치고 문지기를 불러 말했다.

“한 시골 사람이 대기수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1000냥을 주리라.”

왕은 시골 사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내는 오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사내는 찾아오지 않았다.

왕은 사내가 사는 마을의 세금을 올렸다. 그래도 사내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두세 번 세금을 올렸으나 사내는 오지 않았다.

사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고민이었다. 하루는 촌민들이 그를 찾아가 호소했다.

“당신 집에 대기수가 다녀간 뒤로 우리 마을은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해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쾌히 허락하고 나섰다.

“좋소, 내가 대기수를 찾아가 보겠소. 그런데 맨손으로는 갈 수가 없소. 그 사람에게는 아들 둘과 아내가 있소. 그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하오. 입을 옷과 여러 가지 장식품을 준비해 주시오.”

“좋습니다.”

촌민들은 곧 선물을 준비했다. 사내는 촌민들이 준비해 준 선물과 자기 집에서 만든 과자를 가지고 남문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물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대기수님 댁이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 네, 가르쳐 드리고 말고요. 이리 오십시오.”

문지기는 사내를 친절하게 대했다.

사내는 문지기를 따라갔다. 문지기는 왕궁 문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남문 문지기가 시골에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벗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이리 들여보내라.”

왕은 부하들에게 명을 내리고 밖으로 나가 그를 보자마자 얼싸안았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부인과 아들들도 다 잘 계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왕은 그의 손을 잡고 높은 다락에 올라가 흰 일산(日傘) 밑에 있는 왕의 자리에 그를 앉히고 첫째 왕비를 불러 말했다.

“여보, 내 벗의 발을 씻어 드십시오.”

왕은 황금 물병에 든 물을 대야에 부어 주었다. 왕비는 정성껏 사내의 발을 씻기고는 그 발에 향유를 발라 주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내게 주기 위해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내는 전대를 풀어 과자를 내어 놓았다. 왕은 금으로 만든 바리에다 과자를 받고는 다시 왕비와 대신들에게 말했다.

“내 벗이 가지고 온 것이니 먹으시오.”

왕은 왕비와 대신들에게 과자를 권하고 자기도 먹었다.

사내는 왕이 선물 받기를 기뻐하는 줄 알고 또 다른 선물을 꺼냈다.

왕은 입고 있던 옷과 장식품을 벗어 던져버리고 사내가 가져온 옷을 입고

장식품을 달았다. 그리고 왕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는 대신에게 명했다.

“그대는 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분의 머리와 수염을 골라 드려라. 그리고 향탕(香湯)에 목욕을 시키고 10만 냥 어치의 옷을 입히고 왕처럼 장식을 갖추 모시고 오라.”

대신은 분부대로 했다.

왕은 북을 쳐 온 성내에 포고하여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왕을 표시하는 새빨간 실을 붙여 주고, 그 나라의 반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의 처자까지 불러와 성내에 집을 지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의 신뢰관계는 확고하여 아무도 깨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대신들은 왕의 그런 처사에 불만이 많았다. 대신들은 왕자들에게 간혹 그 불만을 토로했다.

“왕자님, 대왕님은 지금 어떤 평민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어 그 사람과 한 곳에서 먹고 마시며 잠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창피스럽기만 합니다. 왕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잘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왕자는 대신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왕을 찾아갔다.

“대왕님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한낱 평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왕은 왕자의 말을 듣고 한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왕자여, 싸움에 나가 패배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왕자는 아는가?”

“모릅니다. 대왕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 집에서 무사히 있다가 돌아와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 은인에게 어찌 내 재산을 아끼겠는가? 왕자여, 보시(布施)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에 빠졌을 때에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왕은 왕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 계승을 유택했다.

보시하지 않을 데에 보시하고 보시할 데에 보시하지 않는 사람 불행에 다다르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그 벗을 얻지 못한다

보시하지 않을 데에 보시하지 않고 보시할 데에 보시하는 이 불행이 다다르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그 벗을 얻을 것이다.

화목과 애정과 특히 그것을 보이는 것은 하천한 거짓부리에게는 효험이 없다. 존귀하고 정직한 이에게 그것을 베풀면 그것은 비록 작더라도 큰 과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선을 행하고 세상에 하기 어려운 일 해낸 사람은 뒤에 가서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는 큰 존경을 받기에 넉넉하리.

왕의 이 말을 듣고 대신도 왕자도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썩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 재미있는 불교 전설 - 벽성 용두리

구두쇠 영감의 최후



시주, 단원 풍속도첩

아주 먼 옛날, 황해도 벽성군 동은 마을에 곱씨라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등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사는 곱노인이었으나 웬일인지 그에게는 소생이 없었다. 그래서선 곱영감은 매일 기생들을 불러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돈을 몰 쓰듯 하면서도 동네 사람이나 일꾼, 그리고 걸인들에게는 어찌나 인색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다.

김을 매던 일꾼이 잠시 쉬거나, 머슴이 병들어 누워 일을 못하면 품삯이나 새경을 감할 만큼 곱영감은 박정했다. 그의 집에선 거문고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일 사이가 없었다. 인근 고을 걸인들은 이 소리에 솔깃해서 뭇 좀 얻어갈까 해서 매일 곱영감 집 앞에 몰려들었다. 구두쇠 곱영감은 이 걸인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여겼다.

“주인 어른, 한 푼 줍쇼.”

“뭘, 한 푼 달라고? 한 푼은 커녕 반 푼도 없다.”

기생들의 가무에 취해 정신이 없던 곱영감은 걸인들의 구걸 소리에 흥을 잃은 듯 버럭 화를 내며 하인을 불렀다.

“이놈들아, 저놈을 썩 내쫓지 못하고 뭇들 하는 거냐?”

분부를 받은 하인은 걸인의 행색이 하도 초라해 보여 차마 밀어내질 못했다.

“주인어른, 한 푼이 없으시거든 밤 한 술을 주시든지 그도 안 되면 막걸리나 한 사발 줍쇼.”

“여봐라, 저놈의 목이 켜켜한 모양이니 돼지막에 가서 뜨물이나 퍼다 얼굴에 끼얹어 줘라.”

뜨물 세례를 받은 걸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달아났다. 그 후 곱영감 집에서는 걸인이 오기만 하면 으레 돼지 뜨물을 퍼다가 끼얹었다.

“허허, 다음에는 뜨물도 야까우니 똥물을 퍼다가 안겨 주도록 해라. 하하하.”

곱영감은 날이 갈수록 걸인 박대가 심해졌고 그 소문은 널리 퍼져 걸인들의 내왕이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웬 탁발승이 곱영감 집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에이, 저 빌어먹을 녀석이 똥물 맛을 보려고 또 왔군.”

곱영감은 걸인이 온 줄 알고 소리를 치며 뛰쳐나갔으나 의젓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주춤했다. 그는 문득 스님을 골려주고 싶어 나직한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저 중의 걸망에다 똥 한 사발을 퍼다 부어라.”

“예? 스님 걸망에 똥을요?”

“쉬이, 들을라. 어서 퍼다 주지, 뭇 꾸물대고 있느냐?”

하인은 하는 수 없이 똥을 퍼 가지고 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눈을 감고 열심히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든 스님은 걸망에 똥을 넣어주자 합장한 채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인장, 대단히 고맙소. 걸인들이 자주 찾아와 몹시 귀찮게 구는 모양인데 내 좋은 비법을 알려 주리다.”

곱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좋은 비법이라고? 무슨 비법인지 어서 알려 주십시오.”

“뒷산에 가 보면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 바위 머리 부분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걸인이 얼씬도 안 할 것입니다.”

곱영감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노발 대발 욕이나 퍼부를 줄 알았는데 똥을 받고도 걸인이 찾아오지 않을 비법을 알려 주니, 곱영감은 마치 금을 캔 듯 신바람이 났다. 한시가 급한 곱영감은 즉시 일꾼들을 모아 뒷산으로 올라갔다. 일꾼들은 바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바위가 워낙 크고 단단해서 작업이 수월치 않자 곱영감은 안달이 났다. 아무리 재촉을 하고 성화를 부려도 좀처럼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곱영감은 인부들을 들볶다가 다시 술과 돈을 주고 달래어서 불철주야로 작업을 시켰다. 만 3개월을 그렇게 계속 한 끝에 바위는 반쯤 갈라졌다. 곱영감은 더욱 인부들을 재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인부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 숨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저어 영감님, 크- 크- 큰일났습니다.”

“아니, 웬 수선이나?”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뭘 피가 흐른다고?”

곱영감은 놀란 인부를 앞세우고

용머리 바위로 달려갔다. 인부들은 놀라서 모두 일손을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선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곱영감은 왈칵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나 스님의 말이 떠올라 길조일 것이라 짐작하고 일을 계속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인부들은 얼른 나서려 하지 않았다.

“영감님, 이는 예삿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시 산신제를 지내고 공사를 중단함이 좋을 듯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을 계속해라.”

“아니옵니다. 소인들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어허, 어서 저 바위 머리를 썩둑 잘라 내거라. 수고비는 내가 두 곱으로 주마.”

인부들은 불길한 징조인 줄 알면서도 곱영감의 고집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바위를 자르기 시작했다.

바위가 피를 흘리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 남은 부분에 금이 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더니, 동아줄을 걸어 잡아당기자 바위의 목이 힘없이 툭 부러졌다. 그때,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번개와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바다를 이루었다. 곱영감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하인을 부르다 벼락에 맞아 죽었다. 뿐만 아니라 고래등 같은 곱영감의 집도 불타 없어졌다.

이 천지개벽이 있던 다음 동리 사람들은 사동리라는 옛 마을 이름을 버리고 용의 머리라는 뜻에서 ‘용두리(龍頭里)’라고 마을 이름을 고쳐 불렀다. 그 후 이 동네 사람들은 구두쇠 곱영감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루었다. 또 효자 열녀를 많이 배출했다고 한다.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숲속 한방랜드(주) 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정자(亭子) 기행 63



병암정(屏巖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53호 / 경북 예천군

병암정(屏巖亭)

연꽃 가득한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병풍처럼 생긴 암벽 위에 자리 잡은 정자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93에 소재한 정자이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53호로 지정되어 있다. 1898년에 건립된 병암정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자로는 비교적 큰 건물이다.

병풍처럼 생긴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병암정은 예천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권원하(權元河)와 관련이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 정자의 우측에는 3칸 규모의 별묘(別廟)가 있는데, 이는 3칸 규모의 맞배기와집으로, 원래는 인산서원(仁山書院)의 사당이였으나 서원이 훼손(毀撤)되자 사당만 이곳으로 이관하여 권맹손(權孟孫), 권오기(權五紀) 등을 봉사하는 별묘로 사용하고 있다.

병암정에 오르면 앞으로 시원하게 터진 들판이 보인다. 정자는 의외로 단출하다. 가운데는 마루를 놓고 양편으로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면으로 긴 마루를 두었다. 원래 병암정은 구한말의 중인 출신 이유인이 지었다고 한다. 그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아 경상감사와 한성판윤, 법무

대신의 요직을 지냈던 인물로, 건축가이기도 했던 그가 낙향하여 정자를 지었다고 하며, 원래의 이름은 '옥소정' 이었다고 한다. 이유인은 이곳에서 매일 고종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 그가 귀양살이 도중에 죽게 되어 예천 권씨 문중에서 이 옥소정을 사들여 병암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병암정 아래에는 큰 연못이 병풍(屏 : 병풍 병) 같은 바위(巖 : 바위 암)를 둘러싸듯 감싸 안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석가산'이라는 작은 섬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못에 돌다리가 놓여 있어 들어가 볼 수 있다. 연못은 연꽃과 수련이 자라고 있다. 한여름이나 늦여름에 찾아가면 연못에 가득 핀 연꽃들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에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얼어붙은 연못과 함께 수직으로 깎은 듯한 절벽, 그 위에 얹혀있는 듯한 정자와 이를 지키려는 듯 자리를 잡은 노송, 그리고 정자의 뒤쪽에 조성된 숲들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가히 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못 한 가운데의 석가산에서 병암정을 올려다 보는 것과 섬 주변을 둘러 보는 것도 큰 묘미가 있다. 큰 암벽의

위쪽에는 큰 글씨로 '屏巖亭' 이 음각되어 있다.

정자로 오르는 길목에는 예천 권씨의 별묘가 자리 잡고 있다. 별묘 위쪽으로 병암정이 옆 모습을 보이며 자리 잡고 있다. 작은 문을 지나면 병암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작은 문의 반대쪽에는 연못을 돌아 오를 수 있는 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병암정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연꽃과 수련이 가득한 연못, 그리고 그 너머의 확 트인 넓은 들판이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해준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을 즐길 줄 알았던 옛 선비들의 풍류와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정자이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백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